

# Sermon of the Week:

## The Place Prepared in Our Hearts



**Passage:** John 14:1-1 (ESV)

**Date:** November 9, 2025

**Pastor:** Young Min Soh

God created the universe and now rules it by His Word. He does everything with a clear plan and purpose. Scripture calls this God's plan of salvation. At the center of that plan—the very purpose of God—is the salvation of humanity. In today's passage, Jesus says,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Through these words we learn that God's purpose is not to build a physical house in some distant location. His purpose is to make us, who were created in His image, into a dwelling place for God Himself. In other words, He makes us into His temple so that God and His people can be one.

When Jesus says that He is going to prepare the Father's house, He means He is going to the cross. Psalm 127 says,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ose who build it labor in vain." Jesus came in the flesh as a carpenter, yet He came to build the true temple where God would dwell—our inner being. He died on the cross for us who were trapped in sin and death. He removed sin and death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After He rose again, He came to dwell in us through the Holy Spirit. So when He says, "I go to prepare a place," He does not mean He is constructing heaven with gold, silver, and jewels. He means that He is

recreating our dead and sinful hearts into a new house where God can dwell. This is what Jesus meant when He said,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up in three days."

Jesus also says,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When our spirit is born again and we are saved, every time that we experience the cross and resurrection more deeply, our hearts grow. As this happens, our inner life becomes a larger house where Christ can dwell in fullness. God desires to pour the life, character, and power of Jesus into us. So He uses our circumstances to enlarge our mind and heart. We often wonder why God allows sickness, suffering, or failure. Yet when we stop holding onto our own thoughts, desires, and plans, and instead desire the will of the Lord, our heart gradually grows larger. The life-giving power of the Spirit and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begin to work in us. As we trust His Word and follow Him into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ross, peace, gratitude, and praise overflow in our hearts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orks within us. In this way, God continues to expand and enlarge us as His house.

In verse 3 Jesus says,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tak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you may be also." The words "I will come again" refers to Jesus who once came in the flesh would come again as the Spirit after Hi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He comes to us as the Holy Spirit. The place

where He is seated—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speaks of the authority as God's children that He gives to us. As Scripture says,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2 Corinthians 3:17]. He gives us freedom from sin, Satan, sickness, fear, worry, and anxiety.

Before the cross we were all separated from Christ. But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We now share His life and can call God, "Abba, Father."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now belongs to us. The risen Christ lives in us today as the life-giving Spirit. In the Holy Spirit, the death of Jesus becomes our death, and His resurrection becomes our resurrection. When this faith grows even a little, we die to the world and to Satan, and we rise into God's life, grace, and glory. When we deny ourselves and die with Christ, His life appears in us. At that moment, the glory of our union with Him is revealed. The reward for Jesus' obedience and His finished work becomes ours. This is our crown of glory and our true hope.

Today the Lord comes to us as the life-giving Spirit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His Spirit fills the whole earth. Only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do we enter true union with God. May our hearts, our homes, and our church become one in Jesus and be filled with His fullness. May this grace abound among us.

# 심니소식

## 나성교회



## 심성교회

11월 23일, 2025년

NASUNGCHURCH.NET

82 호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1-10절

**날짜:** 11월 9일, 2025년

**설교자:** 서영민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가실 때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경륜의 중심, 즉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장소로서의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말씀은 곧 십자가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목수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성전, 곧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의 집으로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지옥을 제거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금·은·보석으로 천국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다시 창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 집으로 만드신다는 의미

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 구원을 받은 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경험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넓은 집, 즉 넓은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과 능력이 풍성히 부어지길 원하시기에 환경을 사용해 우리의 혼과 마음을 넓히십니다. 질병이나 고통, 실패 같은 일이 왜 허락되는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내 생각, 뜻, 욕심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다보면 마음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며 성령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 찬송이 넘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인 우리를 계속 확대, 확충해 가십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와서"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있는 곳"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죄, 사탄, 질병, 근심과 염려에서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 우리는 모두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동일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 우리는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영광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혼을 부인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바로 그 순간 예수와 하나 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순종의 상급도 우리에게 주어 지니,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며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살려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온 땅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 교회가 오직 이 예수로 하나 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유니스 안** 4,5 여성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성희 자매** 1여성교회 교회에서 넘어져 팔의 접골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세리토스 구역)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성교회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성교회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3여성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성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우중 집사** 47세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춘자 집사** 81세, 양주구역 허리협착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형로 집사** 윤춘자 집사 남편 전립선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섬망증상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교소식

지난 7일 러브 멕시코를 섬기시는 박세목 장로님과 함께 나성 교인 6명이 Mexico 엔세나다에 있는 나성교회 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8시간이 넘는 장거리 여정이었지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장로님께서 60세가 넘어 시작하신 멕시코 선교의 시작과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임 목사님 가정과 김성봉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걸어 나오는 주안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22개월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고 불임성이 좋아서 눈을 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주안이를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자신들의 손자나 아들같이 안아주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아픈 데 없이 잘 자라고 있어 너무나 대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보다 센터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또 센터 곳곳에 사모님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자료들과 장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제 시간에 한 형제님께서 “사모님께서 지난번에 빌 때 보다 많이 좋아 보이신다”고 물으실 때, “전에는 환경에 주목하다 보니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 보며 생활하라는 깨달음을 매일 주심에 감사하며 생활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다”라는 간증에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때, 스페인어로 주문하시는 목사님께 “현지인이 다 되셨네요,” 하며 모두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스페인어를 인터넷으로 공부하셔서 매주 아이들 학교와 시장에서 거리에배를 드리시는 목사님을 위해 다시 격려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성교회 형제자매님께서 후원해 주신 물품도 잘 전달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을 제공해 주신 형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성교회 선교부



##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주간소식

- 지난 5일간 계시록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고 협력으로 동역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2026년도 달력을 한 가정당 1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각 남녀선교회 회장들께서는 2025년 선교회 결산보고서를 12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